

한국어 자막 韓國語字幕

언어 기능별 한국어 공략법 言語機能別 韓國語攻略法

안녕하세요 jina-ssem tv 김진입니다.

오늘은 한국어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 볼까 해요.

그래서 저의 경험상 제가 제일 좋았던 방법들을 여기에 말씀드리고 공유해 볼까 해요.

또 여러분만의 더 좋은 공부법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써주세요.

모두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 첫번째 한국어 공략법 '시간을 투자하라'

'시간의 투자'는 좋은 공부법의 불멸의 정석입니다.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얻고 싶은 게 있다면 그만큼 시간의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2. 두번째 '쓰기 읽기'를 위한 한국어 공략법 '본문을 통째로 암기하자'

일본에서 대학원 시험을 준비했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2 년정도 공부에서 손을 떼고 있었고 시험일까지는 날짜도 별로 없는 상태였어요.

제일 걱정되는 게 영어시험이었어요.

어휘, 표현, 문법을 초급부터 중상급까지 단시간에 훑을 수 있도록 일본의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해설서를 샅니다.

모든 본문의 문장을 안 보고 줄줄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한참 동안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느 날 모의시험으로 영작에 도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술술 써 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텍스트 통째로 외우기' 과정을 통해 글쓰기 기술까지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휘, 문법은 하나씩 개별적으로 외우는 것보다 문맥이 있는 하나의 덩어리 전체를 외우는 게 좋아요.

하나의 어휘, 하나의 문법항목은 그 하나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장면과 문맥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죠.

회화나 텍스트 본문이 한 장이면 그 한 장을 외우시고 한 장이 나에겐 너무 많다고 느낄 경우에는 5 줄 아니 3 줄이라도 괜찮아요. 반드시 문맥이 있는 한 덩어리로 외우도록 합니다.

텍스트를 통째로 외우는 이 공략법으로 단기간에 어휘 문법 표현 등 많은 부분의 실력향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강좌를 함께해 주시는 노마 히데키 교수님께서서는 ‘단어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언어장 즉 장면과 문맥 안에서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의미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단어란 처음부터 정해진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어휘와 문법이 회화나 텍스트 안에서 듣는이나 읽는이에 의해 비로소 의미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회화에 나타나는 ‘그래서’ 라는 똑 같은 형태가 문두에서는 ‘그래서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같은 접속사, 문중에서는 ‘어제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못한 거야’처럼 얼버무리는 표현도 되죠.

문말에서는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처럼 이유를 말하면서도 애매하게 말을 흐리는 뛰어난 전략적 표현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회화, 텍스트 안에서 비로소 단어가 의미로서 실현되는 것이죠.

3. 세번째 ‘듣고 말하기’ 공략법, ‘같은 드라마를 반복해서 보며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기’

저는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일본에 어학연수를 왔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최 듣기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는 거죠.

들리지 않으니 회화가 성립이 되지를 않는 거죠. 답답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듣게 되기 위해선 어떤 공부가 좋을까 ...

일본 친구에게 일본 드라마 중에 뭐가 제일 재미있는지 물어봤어요.

친구가 '도쿄 러브 스토리' 라는 드라마를 소개해 줍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거의 자지 않고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도쿄 러브 스토리',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어학교에 갔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어가 너무나도 잘 들렸습니다.
신세계를 접한 기분이랄까요?

일본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김 상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갑자기 일본어를 너무 잘하는데?'

저도 놀랐는데 선생님도 놀라실 정도라니...

놀라움이 확신으로 확신이 자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같은 드라마를 3 번 봅니다.

처음 한번은 대충 스토리를 파악해요.

두 번째 볼 때는 모르는 단어는 들리는 음 그대로를 히라가나로 옮겨 쓰고,
사전을 찾아 노트에 썼어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노트에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쓴 것을 금방 찾아볼 수 있도록.

세 번째 볼 때도 모르는 표현은 메모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보다 메모의 양이 훨씬 줄어 있습니다.

같은 드라마를 반복해서 눈과 귀로 보고 듣기, 모르는 표현은 반드시 메모하고
사전을 찾기...

어휘와 표현을 장면과 함께 몸으로 외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몰라요’, ‘몰라’ 가 어떻게 다를까요?

사전이나 문법서가 가르쳐 주지 않는 것, 단어 레벨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여러 장면에서의 사용을 보며 아 이렇게 다르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문맥과 장면 안에서 문맥과 장면과 함께 외우는 이런 공부법은 그 차이를 알려 줍니다.

‘잊기 위해 외운다’

이때 중요한 건 잊어버렸다고 절대 속상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잊기 위해 외운다’ 입니다.

잊고 외우는 과정이 반복되면 새 표현이 아니라 어느 틈엔가 알고 있던 표현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쓰기와 읽기’, ‘말하기와 듣기’ 라는 언어 기능에 따른 한국어공략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얘기는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또 만나요!